



3일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친 삼성 구자욱(왼쪽)과 kt 안현민. 연합뉴스

‘88.9%’ 걸린 KS 3차전… ‘대포’에 달렸다

오늘 오후 6시30분 플레이볼… 양팀 1·2차전 1점차 ‘혈투’
‘타자 친화’ 대구, 수원보다 올 시즌 홈런 54.1% 더 나와

수원에서 1승씩을 나눠 가진 프로야구 kt wiz와 삼성 라이온즈가 무대를 대구로 옮겨 한국시리즈 향방을 가를 운명적인 3차전을 치른다.

kt와 삼성은 6일 오후 6시30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026 신한 SOL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3차전을 벌인다.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3일 1차전에서는 kt가 8-7로 이겼고, 4일 2차전에서는 삼성이 연장 12회 혈투 끝에 3-2로 승리해 1승 1패 균형을 맞췄다.

팽팽한 흐름 속에 맞이하는 3차전은 우승 트로피 주인을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두 팀이 1·2차전을 1승 1패로 맞선 18차례 가운데 3차전 승리 팀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한 횟수는 무려 16차례로 확률이 88.9%에 달한다.

3차전부터 5차전까지 열리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구장 특성은 시리즈 흐름을 뒤흔들 핵심 변수다.

외야가 팔각형 구조로 설계된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기 쉬운 대표적인 타자 친화 구장이다. 올해 정규시즌 수원에서 나온 홈런은 111개, 대구에서 나온 홈런은 171개로 대구가 수원보다 54.1% 더 많았다.

문제는 두 팀 마운드 모두 적지 않은 피로를 안고 대구에 입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은 PO 5경기에 이어 한국시리즈 1·2차전까지 이미 가을야구 7경기를 소화하며 8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다.

1차전에서는 선발 최원태가 2이닝 5실점으로 일찍 물러나 불펜 투수 6명이 동원됐고, 2차전에서는 연장 12회 대결을 벌였다.

kt 역시 수원 2연전에서 불펜 소모가 컸다. 1차전에서 필승조를 포함해 투수 6명을 투입했고, 2차전에서는 8명이 마운드에 올라 176구를 던졌다.

타자 친화 구장인 대구에서는 지친 투수가 던진 실투 하나가 곧장 치명적인 홈런으로 직결할 위험이 크다.

수원 1·2차전에서는 1차전에 터진 홈런 4방(kt 안현민·한승택·김현수, 삼성 구자욱)이 전부였고, 연장 12회까지 간 2차전에서는 두 팀 모두 홈런이 없었다.

대구에서는 화끈한 장타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2차전에서 6타수 4안타(2루타 1개·3루타 1개)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른 르윈 디아즈와 1·2차전 연속 멀티히트(4타수 2안타)를 친 구자욱이 안방에서 대포를 가동하길 기대한다.

kt 또한 1차전 3안타 2타점, 2차전 2안타 2볼넷으로 활약한 거포 샘 힐리어드를 앞세운다.

힐리어드는 삼성 3차전 선발 아리엘 후라도를 상대로 정규시즌 9타수 4안타 3홈런 5타점으로 강했고, 10월 11일 대구 맞대결에서도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렸다. 또 1차전에서 투런 아치를 그린 안현민도 언제든 대포를 가동할 후보다.

결국 3차전 선발로 나서는 kt 소형준과 삼성 후라도가 장타를 억제하며 얼마나 긴 이닝을 버텨주느냐에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지친 불펜을 구원할 선발 투수 어깨와 거포들 방망이 끝에 88.9% 우승 확률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 코리아오픈 8강 안착… 52연승 질주

역대 남녀 단식 한시즌 최다 우승 신기록 도전

98%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승률로 안방에서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하는 안세영(삼성생명)이 순항을 이어갔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5일 전남광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코리아오픈 슈퍼 500 대회 16강전에서 카루파테반 레차나(28위·말레이시아)를 36분 만에 2-0(21-10, 21-12)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안세영은 올 시즌 왕즈이(3위·중국)에게 단 한 번 패한 이후 52연승을 내달렸다. 올해 성적은 69전 68승 1패로, 승률은 98.55%에 달한다.

시즌 10승을 선점한 안세영은 코리아오픈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9월 아시안게임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고 최근 유럽 원정 2연전까지 싹쓸이한 안세영은 이번에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면, 자신이 지난 시즌 세웠던 ‘역대 남녀 단식 한 시즌 최다 우승(11승)’ 타이기록을 쓰게 된다.

결승전의 유력한 맞대결 상대로는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정도가 거론된다.

지난해 코리아오픈 결승에서는 야마구치가 안세영을 꺾었으나, 이후 안세영이 10번 연속으로 야마구치를 제압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다. 연합뉴스



4일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32강전. 안세영이 칼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스트로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최강탁구대회 21일 개최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200명 접수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탁구 하나로 세대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생활체육 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회장 오용덕)은 오는 21일 제주복합체육관에서 ‘2026 제주스포츠클럽회장배 최강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주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어르신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대통합 탁구 프로그램 ‘세대잇기’의 취지를 확산하고, 탁구를 매개로 학생부터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는 개인 단식과 복식으로 나눠 일반부는 에이스부, 백두부, 한라부, 금강부, 오름부로 수준별 경쟁을 펼치며, 학생부는 초등 저학년·고학년과 중등부·고등부로 구분해 운영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전할 수 있는 ‘한마음 복식’을 마련해 가족이 함께 땀 흘리고 응원하며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회식은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뉴티티플레이(www.newttplay.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200명이다. 위영석기자

전국 동호인 축구 한마당

제2회 제주올레컵 7일부터

‘제2회 제주올레컵 전국동호인 축구대회’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주말마다 제주시 4개 축구장(사라봉, 삼양, 외도1, 외도2)에서 열린다.

제주시체육회(회장 최기창)가 주최하고 제주시축구협회(회장 박형호)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나누는 자리로 50대부, 60대부, 여성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국 7개 시·도의 36팀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제주에서 51경기를 치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첫째 주 주말에 제주팀으로 구성된 예선이 진행된 뒤 2주 후 전국 축구 동호인팀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선이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50대부 16개 팀, 60대부 9개 팀, 여성부 2개 팀이 참가했으며 다른 지방에서는 전북과 울산 경남 충남 등에서 9개 팀이 참가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수상 축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양 성 복
(삼다신협 이사장)
신협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다신협 임직원 일동

합격 축 CONGRATULATIONS
2026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강 민 서
(부 : 강동은 · 모 : 부지희)
(중앙여자고등학교 39회 졸업)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4학년 재학중)
2026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 이모 일동

수상 축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현 태 균 현 기 원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및
2026 제주특별자치도농촌지도자 회원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사)한국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읍면지회 회장단 모임 회장 한 창 희
회원 현태균, 강성일, 강기천, 현기원, 박승권, 정인창

